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오끼나와 여성의 체험

- 기지・군대・여성의 인권 -

우라사끼 시게코 (浦崎成子)

(URASAKI Shigeko : 기지군대를 용서 않는 여성회)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오끼나와 여성의 체험

- 기지·군대·여성의 인권 -

우라사끼 시게코 (浦崎成子)

(URASAKI Shigeko : 기지군대를 용서 않는 여성회)

오끼나와 여성의 체험

- 기지 · 군대 · 여성의 인권 -

우라사끼 시게코 (浦崎成子)

(URASAKI Shigeko : 기지군대를 용서 않는 여성회)

1. 인사말
2. 대만과 오끼나와
3. 오끼나와와 51년(안보체제하의 51년)
4. 안보는 여성에게 있어서 안전보장인가?
5. 냉전하에서 잊혀진 구 일본 식민지의 사람들

1. 인사말

저는 오끼나와 현에서 왔습니다. 1947년에 대만 근처의 이시가끼지마(石垣島)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의 대만 영유기때는, 아마도 일본인으로서 가장 많은 젊은 여성들이 대만에 돈을 벌기위해 나간 섬 일것입니다. 저녁 무렵에 이시가끼 항(港)을 출발하면 눈 뜰 쯤이면 대만에 도착합니다. 저는 현재 오끼나와 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에서 차로 약 30분 걸리는 곳에 살고있으므로 이번엔 이시가끼에서가 아니라 비행기로 왔습니다. 다섯 번째의 대만 방문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쟁전, 일본과의 관련이나 오끼나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대만을 둘러 보기 위하여 타이베이(台北)에서 台南, 金門島, 澎湖島, 蘭嶼島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전쟁전의 대만과 일본, 오끼나와 관계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오끼나와로 돌아올 때, 공항 내 게이트 표시에 「류우큐우」(琉球)행이라 적혀진 한자를 볼때마다, 두가지 기분을 즐깁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과거의 「류우큐우 왕국」이나, 27년간 존재했던 「류우큐우 정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일본국」행이 아닌 것이 즐겁습니다. 이런 감정은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힘든 오끼나와 역사에서 기인하는 것일겁니다. 다른 하나는 1943년의 미국이나 장개석 등의 전후 류우큐우 통치를 둘러싼 「카이로 선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류우큐우」의 통치국은 1943년인 채로 그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좋을텐데...라고 생각합니다. 「류우큐우 정부」 시대에 대만과의 관계는 미군을 통해서 관련되어 왔던 것이 아닐까요?

2. 대만과 오키나와

최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영대기(領台期)에 있어서 여자 노동"입니다. 그 중에서 당시 일본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 한 오키나와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료 문헌은 없습니다만, 체험자들에게서 듣고 적은 것을 정리하다보면 당시의 일본인 가정의 사회적 계층이 조금 보입니다. 또 당시의 그녀들에게는 대만은 일본 것이라는 생각외에는 없고 전쟁에서 미국에 저서 중국에 뺏겨 버렸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로지 작은 섬에서 생각하면 문화적이고 동경같은 대만에 갈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보따리 하나씩 들고 배를 탔습니다.

오키나와 여성은, 가정부 일 외에 여러 직종에 임했습니다. 「대만 척식회사」나 「총독부」에서 일하던 오키나와 여성도 있었습니다. 전쟁후 그녀들도 귀환했습니다. 결혼해서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키나와 여성은 영유 초기부터 창녀를 비롯하여 식민지 대만 경영에 빠질 수 없는 노동자였습니다. 일본 근대는 「류우큐우 처분」을 시초로 대만영유(1895)로 시작되는 식민지 지배를 불가결의 구조로써 성립하고 있으며 당연히 모국의 국민도 말려들게 하였습니다.

오키나와인은 대만인 보다 16년 빠른 1879년에 일본인이 되었으므로 「형님」 같은 우월감에서 일본인 다운 태도로 대만인을 깔보며 「리-야」(일본인 만들어낸 말로, 멸시하는 의미를 내포하며 젊은 대만인들은 모르겠지요? 글자도 없으며 ~~생각~~정도가 적당함)라고 불렀습니다. 별로 의식없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짱꼬로」라고 하는 일본의 차별용어에 가깝습니다. 오키나와 여성에게 있어서는 「대만의 생활은 좋은 시대」였습니다.

3. 오키나와의 5년(안보 체제하의 51년)

오키나와 전 섬에선 제2차 세계대전을 오키나와 전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처참한 상황에 대해선 600권 이상의 책으로 적혀져 나와 있습니다. 60만명 인구의 1/4이 사라졌습니다. 면적은 2,264 hkm²로써 일본 전 국토의 0.6%입니다. 약 50만명의 미군병력한테 폭격을 받았습니다.

전쟁후 여성은 미국인이나 군속의 가정에서 피지배자가 된 류우큐우인 가정부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키나와가 기지경제로 바뀌어 기지에서 타이피스트, 군 작업원 등의 일을 한 여성도 있습니다만 강간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농촌이 차례차례 기지로 바뀌고 수만명의 군인집단의 성적인 공격을 받아 내는 기지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14~15세의 소녀들이 매춘업자들에게 의해 군부대 근처의 야영매춘여관에서 담배 1보루(12개)의 매춘요금으로 매춘을 했습니다. 십여명 전원이 성병감염으로 보호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엔 공인매춘지역이 나타납니다. 토

지도 미군이 필요한 만큼 총검과 불도저(bulldozer)에 의해 뺏기고 여성도 필요한 만큼 민주주의에 바쳐졌습니다.

1945년부터 1972년 일본에 반환할 때 까지 27년간은 미국·일본관계에 있어서 일본에서 분리된 형태로 보이지만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맞습니다. 국가이므로 「류우큐우 정부」가 주어집니다. 상위에 미국인 정부의 포고, 포령, 지령이 있고 군사가 우선하는 "국책"이 있었습니다. 포고가 올마이티(almighty)였으므로 삼권분립은 미국사람 기분에 따라서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와 일본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켜진 허구였습니다. 드러난 군사지배에 의해 기지, 군대의 기능, 조직, 군인의 정신구조라는 것의 성립이 눈에 뻐히 보이는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의 시정권 반환에 의해 오키나와는 다시 일본국의 한 현이 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인이 선택한 적도 없는 일·미 안전보장조약을 강요당해 미군기지는 그대로 둔채 새로운 자위대라는 군대를 덧붙여 보내왔습니다. 오키나와는 어떤때도 전시든 평시든 구 일본군과 미군에 의해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6.25, 베트남전쟁, 걸프전쟁의 출격기지, 군사거점으로써 군대의 위안기지였습니다. 냉전하에선 소련의 핵의 표적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구 일본군은 오키나와에 130개소의 위안소를 만들어 조선, 한국, 대만, 오키나와여성들을 군대위안부(=중군위안부)로 했습니다만 전후 미국은 "A"(Approved for Forces) 사인을 1200군대의 레스토랑, 빠-에 주어서 미군의 성병관리를 했습니다. 오키나와인의 반미적인 운동에 대해선 「시기초과」를 핑계로 오키나와 기지의존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냉전을 둘러싼 오키나와 현민끼리의 반목을 자아내어 지금도 기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 견해보다 과거의 반목감정이 표출되지 않고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냉전후유증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보체제가 얼마나 구조적인 오키나와 차별이며 여성차별인지 잘 알수 있습니다. 기지, 군대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국가는 일상적으로 이 국가폭력장치인 군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51년간 동경, 워싱턴 국민들은 평화를 배당받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여성의 역사체험은 일본 국내의 다른지역 여성들의 그런문제와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안보체제하에서의 기지, 군대의 장기주둔에 따른 여성들에의 성폭력, 살인은 끊임 없습니다. 1972년에서 1995년 까지의 미군범죄의 검거수는 4,790건. 강도 355건, 살인 12건, 부녀폭행 111건에 이릅니다. 부녀폭행은 10배, 20배로도 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분쟁지에 준한 상황에 있다고도 말할수 있겠지요. 이 51년간은 여성에 있어서는 「유사」(有事) 그 자체입니다.

4. 안보는 여성에게 있어서 안전보장인가?

냉전의 산물 「일본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1960년 발효)는

「안보」라고 약칭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일·미 수뇌에 의해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드디어 강력한 세계패권주의에의 파트너십이 약속된 것입니다. 오끼나와는 더욱 군사거점으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억압의 표적 시뮬레이션(simulation : 모의실험)이 끝난것이겠지요.

1995년 9월4일에 세명의 미군이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12살의 소녀를 강간하였습니다. 차로 소녀를 납치 한 것입니다. 그 가족과 소녀는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계속했어요. 아마 오끼나와 사람이나 오끼나와를 아는 사람에겐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끼나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강간이라는 수치스러운 일을 왜 9만명이라는 수많은 오끼나와인이 縣 지사라는 최고 책임자를 선두로 항의하는것일까?」 이유가 의문스럽겠지요?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안보는 필요한 것이며 군대는 필요」하므로 오끼나와에 5만명의 군대를 배치시키려 합니다. 미군기의 폭음으로 어른이나 아이들, 태어나는 갓난아기까지도 심신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리」라고 그들은 말하죠. 오끼나와의 51년간의 기지피해도 「안전보장 조약」에 기인합니다.

소녀의 강간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이사건을 둘러싸고, 어떤 태도를 취할것인지, 어떤 해결 방책으로 진행할것인지가 오끼나와 여성에게 있어서의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는 기본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에의 성폭력은 단순히 미군의 개인적인 사건으로서 일·미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군대 주둔하의 폭력을 조장하고 보완하는 결과가 되어왔습니다. 군대에 의한 여성에의 조직적 성적 수탈은, 전의고양(戰意高揚)의 수단, 보장행위, 욕망·불만·공포의 배출구로써 용인되어왔습니다. 군대는 평시(平時)든 전시(戰時)든 무력(폭력)이 합리화된 조직입니다. 국가에 의한 범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워싱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사령관인 맥키가 「렌트카를 빌릴돈이 있으면 여자를 사는데 좋다」라고 발언하여 사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발언은 강간사건을 질 나쁜 세명의 개인이 행한 범죄로써 군대에서 격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병사를 살아있는 무기·살인기계로 바꿔 만들 임무가 있습니다. 기지의 훈련장은 오끼나와 안에 있습니다. 전투훈련을 받은 군인이 남·북한, 베트남, 걸프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귀환한 병사의 신체, 정신의 황폐함을 오끼나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살기(殺氣)도 전쟁터에 있는 감각을 가진채였습니다. 군대에게 있어선 전쟁터도 역시 일상생활과 같았으며, 적국의 여성을 강간하듯이 오끼나와 여성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기지, 군대 문제를 젠더(여성학적)시점에서 재 조명해 본다면, 여성문제의 왜소화는 되지않을것이며, 기지 존재의 대 전제인 일·미 안전보장조약이 일·미 지위 협정이 간과하고있는, 인권침해, 차별구조를 비취내는 길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1996년 4월의 「日·米 공동선언」(안보재정의)속에서 이 사실이 고려 될 것을 바랬습니다만 언급되지 않았습니니다. 1995년의 북경여성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속에 있는 「분쟁하」의 여성·아이들에의 강간, 인권침해를 「장기군대주둔하」에 있는 상황도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명의 미군에 의한 소녀 강간사건에의 항의와 오끼나와 상황을 호소하려 미국, 일본 국내로 오끼나와 여성은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강간 구원 센터」를 발족시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법 정비를 위해 연구중입니다. 각국 여성의 시민층 네트워크가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무기를 의지하지않는 평화의 실현」을 확실하게 할 생각입니다.

5. 냉전하에서 잊혀진 구 일본 식민지의 사람들

구 식민지하에서 일본이 무엇을 했는지, 그 검증은 더욱 빨리해야하고, 적어도 1991년에 한국의 군대위안부(=정신대)가 되었었던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을 때에 일본정부도, 오끼나와 여성도 전원이 그 문제의 본질을 확인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일부여성이 그 문제와 오끼나와의 기지군대 문제에 있는 공통성을 호소했을 뿐입니다. 더 강력하게 추진했다라면 근본적인 일·미안보조약을 고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끼나와에는 한국에서 정신대로 끌려와 그 후 1990년에 세상을 뜰때까지 오끼나와에 살았던 여성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1972년에는 정신대였던 사실을 밝히고 나섰던 것입니다. 군대위안부 「=종군위안부」(=정신대)문제의 밑바닥에 깔린 것은 전쟁과 성폭력·군대와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종군위안부제도」처럼 강간이 전쟁행위의 의식적 전술임을 명백히 밝힌 것은 없습니다. 국가제도로써 전술행사를 한 것입니다. 「황군이라 불린 군대에게 하사품으로 전달된 물품」이었으므로 오끼나와전(戰)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오끼나와의 与那國島 해상에서 폭격으로 죽은 대만의 「위안부」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들은 군용품의 일부, 《인간 한사람》을 《탄환 1상자》처럼 전선에 보내는 군용품서류가 꾸며졌습니다. 군마·군용건은 그 사망이 기록되었습니다. 《탄환 1상자》로 취급당한 여성들은 생사조차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끼나와 여성도 미군의 강간에 의해 살해된 여섯 살 짜리 소녀의 이름은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오끼나와 전후 50년간에 강간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당해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록에는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체제와 여성차별체제의 일체관계를 오끼나와 여성들은 아플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베티·리아돈은 「강간의 본질은 힘과 폭력을 사용해, 혹은 힘과 폭력으로 위협하여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종속과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적이나 속국민(屬國民) 취급에는

성적 공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연명하기 위한 힘 앞의 복종이 성차별주의와 전쟁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강간은 상징적 목적, 억지목적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시스템 장치, 기본적 공갈의 메카니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끼나와 소녀에 대한 미군의 강간행위를 침묵해 버리면 언제까지나 일·미안보체제하의 오끼나와인에게의 공갈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대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그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스니아 헬츠고비나에서의 군대에 의한 대량 강간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기지와 주민의 생활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신대였던 여성들이 일본정부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일본여성, 오끼나와 여성도 군대의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침묵하고 있었겠지요.

구 식민지에의 여러 가지 책임과 검증을 냉전기 동안에 일본인은 잊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잊게한 장치는 "경제협력" 형태로 상대정부를 묵인시키고 일본인은 「외지에서서 풍요로운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 만으로, 과거는 물에 흘려보내고 잊는 것이 인간으로써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사고에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잊고 있었기에, 혹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대 나라의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끼나와에서의 증언에 의해 냉전하의 후유증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6. 끝맺음

오끼나와 사람들은 전쟁에 의해 많은 것을 잃고 군사지배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당하고 자유를 잃은 경험을 했습니다. 일·미안보조약이 오끼나와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백년은 생명이 국가라는 이름 앞에 사라져가는 지옥을 본 것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의 고통을 나뉘어가는 기쁨을, 평화를 만들어 낼 의사를 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케 했습니다. 일·미공동선언('96년 4월)의 방향이 우리들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지금이야말로 이 심포지움에 참가한 사람들의 힘으로 물리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대국의 주민들이 정의를 갈구하는 인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끼나와를 1816년에 방문한 영국인 버질·홀은 오끼나와를 「守禮의 民」, 「무기없는 나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 1879년 까지의 류우큐우왕국은 350년 이상 무기없는 나라였습니다. 역사상의 모델의 하나일겁니다. 51년간 오끼나와 사람들은 파괴의 프로세스에 절망할 때에도 「생명이야 말로 보물」이었으며 인권침해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저항을 계속해 왔습니다.

나이프(naive)한 유토피아라고 하더라도 평화, 공생에의 실천원리를 만들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학 창시자의 한사람인 요한·가르둥교수의 말을 끝으로 소개드리며

제 보고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뿐만이 아니고 폭력을 줄이고 폭력에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폭력이란 정신적, 육체적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Johan · Galtung)